Job p/13
토익스피킹 준비는 이렇게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26일 수요일 제2942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밀회' 월화드라마 강자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1만7000명 채용 '2014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열렸다. 서울 및 수도권에선 26일까지, 호남권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다음달 9일, 영남권은 대구 엑스코에서 내달 16일까지 이어지는 이 박람회에는 현대·기아차 협력사 37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들은 이 행사 등을 통해 올해 신규 인력 1만7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공고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대 금리…은행 정기예금 '썰물'

지난해 8년만에 감소, 단기 부동자금으로 이동

정기예금이 1%대 '바닥 금리'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에 묶였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한 데 따른 것.

신한은행의 민트 정기예금 기본금리(3개월 만기)는 연 1.6%까지 내려왔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해야 겨우 2%대 금리(2.39%)를 받을 수 있다.국민은행의 국민슈퍼정기예금 금리(3개월 만기)는 연 1.9%, 산업은행의 KDB드림 맞춤 정기예금은 1.95%다.

만기가 1년을 넘는 정기예금 상품 중에는 2%대 중후반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 있지만,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이달 24일부터 1년 만기 민트 정기예금과 두근두근 커플 정기예금, 스마트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모두 연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내렸다. 국민은행의 국민슈퍼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도 지난달 24일 2.59%에서 2.56%로 0.04%포인트 하락했다. 은퇴자 등 이자소득 계층이 1억원을 2.4%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한 해 받는 이자는 240만원이다. 여기서 이자소득세를 빼면 주머니에 남는 돈은 203만400원으로 매월 16만9200원 꼴이다.

한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집계한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2.58%에서 12월 2.66%로 반등했다가 올해 1월 다시 2.63%로 내렸다.

저금리로 인해 정기예금 매력이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 규모는 558조8983억원이었다. 2012년 말보다 16조8084억원(2.9%) 감소했다. 은행 정기예금이 줄어든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08년 300조원대에 달하던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010년말 500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정기예금 잔액은 5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예금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9년간 9%에 달했지만, 지난해 정기예금 증가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요구불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 부동자금은 712조8854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시중은행들의 재원 조달 안정성이 떨어져 원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럴 때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정기예금 금리에 플러스알파를 얻을 수 있는 중수익·중위험 상품이나 세금 우대 상품도 주목받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정기예금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예대율 규제라는 보완 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지하철 8호선 별내선 노선확정 5개역 신설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 전철 노선이 확정됐다.

서울 암사역~구리 토평~중앙선 구리역~남양주 진건보금자리~별내신도시에 건설되며 역사 5곳이 신설된다.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내선 노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구리역~진건보금자리 구간을 일부 변경해 구리시가 요구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노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구간 역사 신설은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별내선 건설 후 수요를 분석, 도매시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신설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선은 서울 2.3km, 구리 8.0km, 남양주 2.3km 등 모두 12.6km이며 이번 노선 변경으로 애초 계획보다 0.1km 줄었다.

도는 이르면 내년 중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조3216억원이 투입된다.

/안용기기자 kahn@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한·미·일 정상 핵 비확산 논의

박대통령 기조연설, 핵 안보 등 4개항 제안

한·미·일 정상회담이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새벽)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정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지만, 과거사 인식이나 일제 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자 간 역사 문제는 배제키로 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 측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 답변에서 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계승 입장을 밝힌 것도 기류 변화의 요인이 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가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 그 시대의 새로운 정치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을 다시 주장하는 등 본색을 다시 드러내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3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안보와 핵 군축, 핵 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 안보에 관한 지역 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 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웃고 있는 한·미·일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오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심상찮은 패션업계 소송바람

기자 수첩

김 학 철 <생활레저부 기자>

패션업계에 부는 소송 바람이 심상치 않다. 국내사를 상대로 한 글로벌 패션기업의 잇딴 소송은 국내 패션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브랜드를 길들이려는 의도와 노이즈 마케팅 수법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사실 패션업계에서 디자인 도용은 카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소송 당사자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쉬쉬'해왔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업종에서 시즌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국내 중소 패션업체나 인디 브랜드들의 최근 패션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 및 이의 제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안 해도 그만'인 일이었으나 삼성에버랜드 에잇세컨즈와 유니클로의 양말을 상대한 코벨, 리얼컴퍼니 DOHC 가방을 상대한 로우로우, 형지 크로커다일 레이디 가방에 대한 지나인 뉴욕 등의 대처는 홍보 목적이라기보다는 생존과 자존심의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패션=업체들이 분쟁의 소지를 무시하거나 디자인에 있어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제는 기업 스스로 디자인 카피나 상표 도용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패션기업들은 홍보의 먹잇감이 된 수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 카피 없는 디자인으로 자존심에 신경써야 할 때다.

국민 10명 중 3명 미세먼지 질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전국 성인남녀 2034명 대상 여론조사(전화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17%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는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의 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56.4%,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2.5%였다.

응답자의 약 60%는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 활동에 대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고 답했고, 약 40%는 '상관없이 외출한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발생한 미세먼지 스모그가 과거에 비해 심해졌다는 응답은 91.3%로 조사됐다. /조현정기자 jhj@

중앙은행 총재의 소통 방식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요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첫 여성 의장인 재닛 옐런의 '친절한 소통'이 주목받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임 의장들과는 사뭇 다른 소통 방식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느리고 쉬운 말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간단한 질문에도 세심하고 또렷하게 답변하는 그의 모습이 친밀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동안 턱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버냉키 전 의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려운 경제 이론을 쏟아내며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임 그린스펀 의장 역시 모호한 화법을 즐겨 썼다. 이런 분위기를 두루 겪어본 뒤라 시장에선 옐런의 친절한 설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 총재의 소통 방식은 '개인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한은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김중수 총재의 소통 스타일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말속도가 다소 빠르고,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려 가끔 난감한 적이 있었다. 특히 외래어와 어려운 경제 용어를 많이 사용한 점은 가장 아쉬웠다.

앞서 김 총재는 "근본적으로 한은은 '국민의 중앙은행'이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앙은행'은 아니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국민들도 좀 더 여유롭고 또박또박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한은 총재의 소통을 듣고 싶어할 것이다.

비리·부정 공직후보자 형사고발

새정치민주 당헌·당규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이 적발된 당내 공직후보자의 당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고발 의무화 외에 신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신당의 지도 체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2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임시 지도부의 임기는 1년 뒤 열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최고위원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해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임시 지도 체제 이후의 정식 최고위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 최고위원 5명,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되는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이다.

비례대표는 30% 이내의 범위에서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선거 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의 순위를 안배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

환형유치제 개선안 검토

'노역 일당 5억원'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환형유치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대법원은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치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수석부장판사 회의 논의 내용까지 검토한 뒤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돼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윤다혜기자 ydh@

천안함 46용사 묘역찾은 생존장병들 천안함 사고 4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희생 장병이 잠든 대전현충원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일자리 23만개 만들기로

올해 4481억 투입, 현장요구 인력 양성

서울시가 올해 44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만8216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발굴해 일자리로 연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5일 '2014 서울 일자리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다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내 공공 일자리 9만5327개, 민간 일자리 13만2889개를 만든다. 지난해(20만9080개)보다 9.2% 증가한 것이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4231억원)와 비교해 5.9% 늘어났다.

우선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우선 뉴딜일자리로 운영하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뉴딜일자리는 돌봄·교육·안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 육아·반찬가게 등), 문화·예술(거리공연·예술공연 등) 분야로 확대된다.

성공을 보장하는 창업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공 가능성이 큰 창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말 노원구 신관동에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한다.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4개 기술교육원(동부·중부·남부·북부)의 교과과정을 새로 고쳐 산업 동향과 기업 수요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이달 말부터 '청년취업센터'를 운영해 진로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대체인력센터'도 상반기 내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200개 기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간접 고용 청소근로자 4217명은 올해 말까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시설 경비와 기타 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유통기한 고친 축산품 대량유통

검찰·식약처 합동수사단 적발

유명 업체의 축산 제품이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여부, 유통기한 등이 변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인 결과, 불량 축산물을 강원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변조하는 데 가담한 운영실장 양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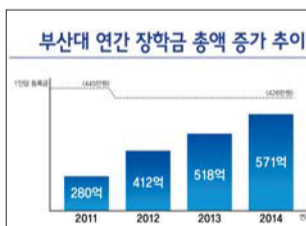
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어치의 축산물 29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1대4 비율로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 총 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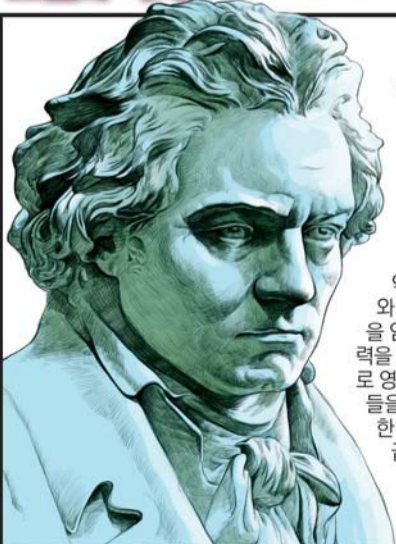
부산대 3명 중 2명에 장학금

올해 부산대를 다니는 학생 3명 중 2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부산대학교는 2014학년도에 학부 장학금 총 57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18억6000만원보다 52억5000만원이 확충된 것으로, 재학생 총 2만2000명 중 1만4700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88만원은 부산대의 2014학년도 연간 등록금인 426만원의 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작곡가 베토벤 사망

1827년 3월 26일,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음악의 성인'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상을 떠났다. 궁정 음악가인 아버지의 야심에 따라 제2의 모차르트로 키워진 그는 청소년기에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만나 음악적 인정을 받았고 피아노 소나타와 현악 4중주곡 등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20대 중반 이후 청력을 잃어가던 그는 기적적인 집중력으로 영웅·운명·전원 등 주옥같은 교향곡들을 작곡했지만 기악과 성악을 결합한 교향곡의 정점 '합창교향곡'을 끝으로 57년의 생을 마감했다.

봄옷 갈아입는 서울광장 2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잔디를 깔고 있다. 서울광장은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안정화 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뉴시스

영등포구에 "관광호텔 승인하라"

안행부, "주민민원 이유 허가지연 안돼"

정부가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호텔 건설을 승인하라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청에 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투자개발의 임원과 인허가권자인 영등포구청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승은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영등포구 양평로에 300여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유해 환경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따라 주민과 업체 간 중재에 나서고, 한승은 호텔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경옥 차관은 "지자체 규제 중 기업인들의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지자체 일선공무원들의 행태규제"라며 "지자체가 앞장서 잘못된 규제들은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실시하고 있는 특별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예술인과 계약때 티켓 강매 못해

앞으로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업자가 예술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임금에서 표 구입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축소해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고·지방비·기금의 보조를 받아 예술 활동을 진행한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법적으로는 '예술인'에서 제외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조현정기자 jhj@

지하철·버스 성형광고 손질

서울시가 시내 지하철·버스의 성형 광고를 대폭 손질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1~8호선 광고는 모두 7641건이며 이 중 3.1%(237건)가 성형 광고다. 호선별로 보면 강남지역을 통과하는 3호선에 전체 성형 광고 중 73%(173건)가 몰려있고, ▲7호선(27건) ▲5호선(13건) ▲4호선(11건) 순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의 인쇄물 성형광고 비중을 역·차량별로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동시에 성형 전후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지하철공사와 광고 대행사에 통보한다. 또 초·중·고교 주변 버스정류소에도 성형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예쁘게 깎아주세요" 석가탄신일(5월 6일)을 앞두고 한 동자승이 25일 오전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서 머리를 깎고 있다. /뉴시스

영화촬영 30일부터 교통통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이 시내 전역에서 촬영돼 대규모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먼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는 마포대교가 전면 통제돼 서강대교와 원효대교로 돌아가야 한다.

다음달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월드컵북로(월드컵파크 7단지~상암초교사거리)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171번 등 버스 16개 노선이 성암로와 월드컵로로 우회 운행한다. 5일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는 청담대교 진입램프가 통제되고 6일 오전 4시30분부터 정오까지는 강남대로 강남역→신논현역 한 방향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외출 전 다산콜센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트위터를 통해 교통 통제 구간과 우회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다혜기자

용산, 구인·구직 일구데이 운영

서울시 용산구가 4월부터 매월 19일을 '구인구직 일구데이'로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4·6·9·11월에는 면접과 채용을, 5·7·10·12월은 취업 관련 강의·상담을 진행한다.

인천 모자살인 피고 "극형 면해달라"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30)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변호인은 "죄가 너무 크지만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의 반인륜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르다"며 "많이 심리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용현동에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각각 냈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윤다혜기자 ydh@

관광해설사 명예 수문장으로

서울시 종로구는 오는 30일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경복궁의 명예 수문장으로 임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열리는 수문장 임명식에서 단체가 명예 수문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서울시 송파구가 26일 오후 2시 구청 8층 송파아카데미에서 '2014년 1차 민·관 연합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인도양 추락

인공위성 분석 결론…수색작업 본격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추락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영국 인공위성 인마샛 전문가들의 비행 경로 분석 작업 덕분이다. 이들은 실종기의 운항 궤적이 인도양 남부 해역에서 끝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인마샛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이미 나온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실종기의 항로가 남부 항로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비행 경로 오차는 160㎞ 안팎"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당국 역시 실종 여객기가 남부 항로를 비행했으며 최종 위치가 호주 퍼스 서쪽 인도양 해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직 항공기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론을 토대로 인공위성 등에서 확인된 물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호주 오리언 정찰기는 이날 인도양에서 회색, 녹색의 원형 물체와 주황색 직사각형 물체 등 2점을 발견했다. 이들 물체가 발견된 곳 역시 호주 퍼스 남서쪽 약 2500㎞ 해상이다. 이 지역은 컴퓨터 분석에서 실종 여객기의 연료가 고갈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기체가 높은 고도에서 공중 분해되지 않고 연료 고갈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 골격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인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여객기가 실종 17일 만에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자 중국 탑승객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여객기 추락 소식을 발표하기 직전 '생환자는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며 통곡했다고 신화망 등 중국 언론은 전했다.

소식을 접한 한 여성은 탑승했던 아들과 며느리, 손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말레이 실종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39명 중 중국인은 15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전통무술 배우는 미셸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남부 쓰촨성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중국 전통무술인 태극권 동작을 배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원전주변 피폭량 추산치 왜곡

마이니치, 은폐의혹 제기

일본 정부기관이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의 피폭량 추산치를 은폐,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25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내각부 산하 원자력재해피해자생활지원팀(이하 지원팀)은 지난해 9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에 의뢰해 후쿠시마현 내 3개 지역의 건물 안팎, 농지, 산림 등지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한 뒤 피폭량 추산치를 냈다. 추산치를 공개해 피난 지시 해제 지역으로 돌아갈 주민들의 불안감을 씻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1밀리시버트(mSv)대를 예상했던 개인별 연간 피폭량 수치가 2.6~6.6mSv로 나오자 지원팀은 "지자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수치 공개를 미루기로 했다.

또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는 당초 '옥외 8시간, 실내 16시간'으로 설정했던 조사의 조건을 변경,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옥외 활동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바꿨다. 이후 낮아진 피폭 수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에도 지원팀은 조사 결과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쿄 의대 기무라 신조 교수는 "옥외 8시간, 실내 16시간의 조건은 일반적인 것으로 그것을 바꾸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숫자 장난'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조선미기자

대기오염으로 700만명 숨져

2012년 한 해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약 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환경 위험으로 등장했다. 대기오염을 줄여야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HO는 2012년 석탄 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 430만 명, 실외 대기 오염으로 370만 명의 질병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실내 공기 오염과 실외 대기 오염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700만 명이 대기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자동차 부활 박물관' 문열어 화제

metro Russia

작가들 위한 작업공간도

Роботы восстали в Парголово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시에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해 전시품을 만드는 '자동차 부활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트랜스포머관, 무비 영웅관, 정글관, 맹금관, 고무와 나무화석 전시관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전시품과 조명, 자외선 광선, 음악이 어울려 독특한 조화를 이루며 전시관에서는 각각의 테마에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박물관 전시품들은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부품을 재활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위해 박물관에는 작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도 마련돼 있다.

박물관 관계자 아르좀 하리토노프는 "우리 박물관의 특징은 방문객들이 원하는 전시품을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령 트랜스포머 로봇이 마음에 든다면 주문에 따라 박물관 내 작업실에서 전시품을 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레이저 하프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며 "박물관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악기로 손은 물론 발과 혀 등 신체 모든 부위로 연주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물관 내 전시된 영화 속 영웅들도 볼거리다. 헐크와 미국 유명 애니메이션 퓨처라마의 벤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등이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다.

전시 로봇 제작자는 "미니 로봇의 인기가 대단하다"며 "어린 시절 고물로 만들던 로봇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니 로봇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속과 종이, 작은 부품 등으로 로봇의 뼈대를 만들고 물감을 칠하면 모든 어린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로봇이 탄생한다"며 "그중에서도 말하는 로봇이 최고 인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봇트론 쇼 제작자 이반 쿠브초프는 "모스크바에서 들여온 말하는 로봇은 '어떤 별에서 왔느냐? 몇 살이냐?'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한다"며 "말하는 것은 물론 걷거나 눈물도 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가 솔가로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1941.25	(−4.30)
코스닥	539.05	(−6.55)
금리(국고채 3년)	2.88	(−0.01)
환율(원·달러)	1077.90	(+1.20)

가구주 고령화…넷 중 한 집 60세 이상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0~30대 가구주의 비중은 현저히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주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5일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20~30대 가구주 비중은 1990년 56.9%에서 2012년 23.4%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가구주는 3.4%에서 24.3%로 7.2배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7.2%로 2008년 45.5%보다 높아져 노인의 50% 가량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균기자 ksgit@

김연아 바람 vs 휘센 바람 '시원한 경쟁'

삼성·LG 에어컨 신제품 각각 퀸 디스플레이·포커스 4D 냉방 자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어컨 시장 주도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삼성전자는 김연아 선수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으로, LG전자는 스마트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새로운 에어컨을 출시하며 올해 에어컨 시장 1위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LG전자는 25일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센터에서 'LG 휘센 신제품 발표회'(사진)를 열고 신제품인 '휘센 빅토리(모델명: FNQ167VEMS)'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상하좌우 토출구를 중앙으로 모은 '포커스 4D 입체냉방'을 통해 지난해 제품 대비 최대 20% 빨라진 냉방 속도를 구현한다.

'3M 초미세 먼지필터'도 채택해 황사는 물론 0.02㎛ 먼지까지 제거하며, 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 150% 효율이 좋은 '에너지 프론티어' 등급을 받았다. 또한 LG전자는 지난해 스탠드 에어컨에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벽걸이 제품에 이 기능을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올해 초 출시한 '크라운 프리미엄' 모델 등 와이파이 지원 제품에 '홈챗(Home Chat)' 서비스를 다음달 상용화할 계획이다. 홈챗은 모바일 메신저로 가전제품과 채팅하는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로, 사용자가 모바일 메신저에서 휘센 에어컨을 친구로 등록한 뒤 "휘센 에어컨 뭐해?"라고 물으면 "현재 온도 27도, 희망 온도 23도, 냉방 세기는 강풍으로 운전 중이에요"라고 답한다.

네이버 '라인'을 통해 4월부터, '카카오톡'으로는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24일 스마트 에어컨 모델인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적용한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 2종을 출시했다.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 2종은 기획 단계부터 김연아 선수를 모티브로 해 제작됐다. 우선 '김연아 스페셜 퀸' 제품은 피겨 퀸의 왕관을 모티브로 디자인해 크리스털 왕관을 형상화한 아치 형태의 '퀸 디스플레이'를 제품 상단에 적용했다.

'김연아 스페셜 엣지' 제품은 김연아 선수가 멋진 기술과 연기를 펼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이트 날의 '엣지'를 디자인 패턴으로 적용해 제품 테두리에 각진 형태의 엣지 라인이 들어가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전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뉴스&뉴스

SKT 보상금 조회 홈피 운영

● SK텔레콤의 보상금을 조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발생한 통화 장애의 피해 보상액 조회 시스템(cs.sktelecom.com) 운영을 2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가입 요금제와 피해 시간대에 따른 총 보상 금액과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0114) 및 지점·대리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보험사 개인정보 1만건 유출

●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를 비롯한 보험사 14개사에서 1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확인 결과, 유출된 정보의 대부분은 보험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보험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정원기자

한화 '이력서 사진 찍어주는' 채용설명회 한화그룹이 상반기 대졸 공채 설명회 및 상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졸 공채 채용설명회에서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 연세대 및 부산대를 시작으로 25일 고려대·경북대, 26일 충남대·전남대, 27일 서울대 등 전국 7개 대학에서 진행한다. /한화 제공

제주 꽃 핀 '분양형 호텔' 벌써 끝물?

상반기에만 3000실 공급 신규 투자자 '거품' 조심

공급 과잉으로 오피스텔·원룸 등 기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분양형 호텔'이 틈새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1~2년 사이 공급이 부쩍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분양형 호텔 공급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의 경우 이미 투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에서 공급된 호텔은 1443실 규모다. 여기에 올 상반기 분양됐거나 분양될 호텔도 3000여 실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 호텔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데는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제주관광협회에 의하면 2008년 582만 명이었던 제주도 관광객 수는 지난해 1085만 명까지 늘었다. 이에 반해 호텔은 1만6000여 실에 불과해 만성적인 숙박시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객실 수에 비해 공급되는 호텔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제주도에서 부족한 객실 수는 5000여 실이지만 현재까지 3700실 정도가 분양됐다"며 "공급 과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분양형 호텔로 몰릴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은 바우젠거리의 상가 대부분도 중국인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자본에 의해 제주시 도심에 지어지는 56층 규모의 드림타워 초고층 호텔이 문을 열 경우 분양형 호텔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고 있지만 중국 자본이 투자된 곳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짙어, 우리나라 분양형 호텔에 투숙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벌써 분양형 호텔은 끝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대부 이자율 상한 연34.9%로 낮춘다

오는 4월 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자율 상한의 인하 외 ▲대부업 영업 실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 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원기자 pjw89@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1883호(2013.8.13) [13-A-CL-305]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암·치매·사망

지금, 라이나에서 실버만을 위한 다양한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1~80세라면 100세까지 길게 다양한 암 보장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 ☑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 ☑ 사시는 내내 암치료비 걱정 더시라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 ☑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음 *1회한, 암 종류별 보장내용 및 보장개시일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50~81세라면 나이·건강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시금 지급
- ☑ 질병, 재해, 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보장
  -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 ☑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가입 당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45~70세라면 경증치매로 한 번 중증치매로 한 번 두 번 보장

라이나 무배당 **THE큰보장실버보험**

- ☑ 치매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경증치매부터 보장
- ☑ 재해로 인한 입원, 골절, 화상 수술 보장 (선택 특약)
- ☑ 노년에 흔히 하는 폐렴, 천식, 간질환, 신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보장 (선택 특약)
- ☑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갱신 없이 80세까지 보장

*가입 후 2년 후에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치료보험금 지급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무료 상 담 문 의 **080-325-1100**

■(무)실버암보험(갱신형) *갱신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보장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가입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지급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무)OK실버보험(갱신형)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갱신가능 최고나이 81세) *의적질문 및 의료검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특정 질병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망보장 보험상품임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됨 ■(무)THE큰보장실버보험 *가입나이 : 45~70세까지 가입가능, 80세까지 보장 *2년 이내 경증치매 진단 시 계약 취소 가능, 2년 이내 중증치매 진단 시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만 지급 *경증치매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 검사(CDR) 점수가 1 또는 2인 경우를 말하며, 중증치매는 동 인지기능검사(CDR)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무)재해골절특약, (무)재해입원특약 선택 가입 가능 (단, 재해 골절의 경우, 치아파절은 제외) *(무)실버특정수술보장특약 선택 가입 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수술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가입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50% 지급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공통사항**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나스닥 흔든 바이오주 '빨간불'

길리어드 등 주요기업 약세 전환… 국내 신약·헬스케어주도 조정

바이오주 불패 신화가 흔들릴 조짐에 국내 바이오 업종주가 잠시 숨을 죽였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나스닥 바이오주들이 조정 조짐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거품 붕괴론마저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1.18% 하락하며 이틀간 2%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가 각각 0.16%, 0.49% 떨어진 것에 비해 나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바이오주의 최근 하락은 정치권과 업계의 이견 차에서 촉발됐다.

지난주 금요일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신형 C형 간염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시장의 길리어드의 주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젠 아이덱(-1.86%), 셀진(-2.02%) 등 바이오주 전반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나스닥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아이셰어즈 나스닥 생명기술(BT)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는 지난해 65% 넘게 치솟았지만 최근 2거래일간 7.36% 폭락했다.

게다가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테슬라 등 나스닥의 기술주들까지 줄줄이 하락하며 나스닥 거품 우려에 무게를 실었다.

국내 바이오 업종도 미국발 찬바람에 투자심리가 움츠러들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의약품지수는 이날 0.41%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의 제약지수는 1.47% 빠졌다.

특히 신약 개발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씨바이오(-2.74%), 메디프론(-3.07%), 인트론바이오(-5.15%), 레고켐바이오(-4.94%) 등이 나스닥과 나란히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그 외 셀트리온(-0.12%), 차바이오앤(-3.11%), 메디포스트(-2.87%) 등의 바이오·헬스케어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바이오주의 거품이 꺼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큰 그림상 미 증시와 동조화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향후 국내 바이오주 중 꾸준한 실적, 양호한 시장점유율, 신규 사업 호조를 보이는 종목은 높은 주가수익비율(PER)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의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미국 나스닥 시장의 바이오(BT) 관련주가 거품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25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55포인트(1.20%) 급락한 539.05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체크카드 결제 비중 19% 넘어 역대 최대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 금액 비중이 20%에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인 41조4800억원에서 체크카드 승인 금액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19.4%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 금액 비중은 8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체크카드 이용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카드 승인 금액은 줄어들고 체크카드 승인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체크카드 승인 금액은 8조6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승인 금액은 33조26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줄었다. 이는 지난달보다도 12.9%, 4조9500억원 감소한 수치로 신용카드가 이처럼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실제 카드 종류별 상위 10대 업종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비교적 결제 금액이 높은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소액결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기성복과 같이 평균 결제 금액이 낮은 업종이 주를 이뤘다.

/백아란기자

"대내외 위험 요인들 국내 금융 영향 제한"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설비투자 부진과 미국의 테이퍼링,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재정 건전성 등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은 여전히 양호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대외 위험 요인의 영향과 파급 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대외 충격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잠재 성장률 4% 수준인 경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지향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경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 부총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pjw89@

이마트 칠레와인 'G7' 200만병 판매 돌파 이마트 대표 칠레 와인 G7이 국내 출시된 와인 중 최단기간인 5년 만인 25일 200만 병이 판매되며 '최단기간 200만 병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마트 제공

지난해 은행 고용인원 소폭 증가

총 12만2262명… 전년말 대비 0.4% 늘어나

지난해 은행권의 고용 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개 은행의 총 고용 인원은 12만2262명으로 전년 말인 12만1747명에 비해 0.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이 새로 채용한 인원이 6191명으로 퇴직한 인원인 5676명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 인원 및 책임자급 여성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총 고용 인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로 2012년 말 47.2%보다 0.2%포인트 소폭 올랐다.

특히 지난해 말 책임자급 이상 가운데 여성 비율은 23.8%로 1년 사이 1.5%포인트 늘었고 기준 책임자급 이상의 각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도 2012년에 비해 0.6~2.0%포인트씩 각각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부행장보 이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57명으로 0.8%포인트 2명 더 늘었다. 본부장급의 여성 비중은 1년 사이 6.3%, 24명에서 7.2% 29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고용 구조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정규직 인원은 11만7410명으로 2012년 말인 11만2445명보다 4.4%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간제 인원은 9302명에서 4852명으로 47.8% 감소한 것.

협의회 관계자는 "금융 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들이 1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용 현황과 여성 고용 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등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한양 52억 과징금

부당 하도급 관련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52억6000만원은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간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도했다.

또 2010~2011년에는 한양이 건설한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 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를 작성·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관행적으로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구매토록 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유럽이 반한 레저차 상륙

시트로앵 C4 그랜드 출시… 수입차 유일의 '7인승 디젤 미니밴'

급증하고 있는 국내 레저용 차량 수요에 맞춰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 송승철)가 '그랜드 C4 피카소(Grand C4 Picasso)'를 25일 선보이고 판매에 들어갔다.

그랜드 C4 피카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수입차 시장 유일의 7인승 디젤 MPV(다목적차, 미니밴)라는 점이다. 기존에 판매되던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와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딧세이가 모두 가솔린 모델인 것과 차이가 있다.

그랜드 C4 피카소는 PSA 그룹의 경량 플랫폼인 'EMP2'를 적용, 이전 세대와 길이는 같지만 휠베이스를 110mm가량 늘려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 7명이 차량 안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장치를 더했고, 내부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했다. 트렁크 공간은 645ℓ이고, 2열을 앞쪽으로 당기면 700ℓ까지 늘어난다. 또한 2열 좌석을 접으면 최대 1843ℓ까지 적재할 수 있다.

시트로엥 C4 피카소는 지난해 6월(그랜드 C4 피카소는 9월), 유럽 시장 출시 이후 8만 대가 넘게 판매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유력 전문지로부터도 다수의 상을 수상하면서 진가를 입증하고 있다.

성능 면에서는 뛰어난 연비(26.7km/ℓ 수동, 22.2km/ℓ 자동, 모두 유럽 기준)와 강력한 주행성능(최대 출력 150마력), 넉넉한 공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고려한 인테리어 등 다양한 강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이사는 "유럽 현지에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 공급 물량이 걱정되지만, 올해 1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영업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C4 피카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면서 "영업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고 전했다.

국내시장에는 7인승인 그랜드 C4 피카소가 먼저 들어오고, 연내에 5인승 C4 피카소도 출시될 예정이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는 인텐시브(Intensive)와 인텐시브 플러스(Intensive Plus)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4290만원과 469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방통위 3기 출범 전부터 삐걱

'야당 추천' 고삼석 위원 법제처서 '부적격' 해석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홍성규·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 김대희·양문석 상임위원 등 방통위 2기가 25일로 임기가 종료됐다. 이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방통위 3기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이날 선임된 이기주(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에서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을 받고 국회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방통위 3기 구성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 처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재추천 요구를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2명은 야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부교수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 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하지만 방통위 측이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 기준 여부에 대한 민원을 받아 이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방통위 3기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합산규제 법안의 해결 ▲KT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처벌 ▲이통 3사 추가 영업정지 시기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출범 초기부터 잡음을 겪게 된 방통위 3기 구성이 원활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퍼실로 세탁하면 '라벤더 향' 폴폴 독일 생활용품 기업 헨켈홈케어코리아의 세탁세제 브랜드 퍼실이 오는 25일 신제품 '퍼실 라벤더 코튼 프레쉬'를 공개했다. /헨켈 제공

집단소송·보상금 스미싱… '악재 꼬리문' SKT

SK텔레콤이 통화 장애 집단소송 움직임에 이어 '보상금 사칭 스미싱'까지 등장해 악재가 겹쳤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통화 장애 보상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다량 전송돼 서울지방경찰청이 경계령을 내렸다. 이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카드 정보 및 계좌번호를 적어 답신하면 보상금 수령은커녕 소액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발생한 통화 장애와 관련해 고객의 별도 청구 없이 4월 청구서에서 보상 금액만큼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직접 피해 고객 560만여 명을 비롯해 모든 가입자는 피해 정도와 요금제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정확한 보상액은 SK텔레콤 공식 조회 시스템(cs.sktelecom.com)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화 장애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보상 관련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상담 인력을 평상시 대비 40% 증원했다.

SK텔레콤 측은 "우리는 개별적인 전화로 고객들의 정보 입력이나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보상 금액 지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번호와 계좌·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ARS·문자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스미싱 막는 'U+스팸차단' 앱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스미싱 피해를 막는 'U+스팸차단' 앱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스팸(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스팸문자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U+스팸차단 앱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U+스팸차단은 ▲스팸 차단 내역 조회·복원 및 신고 ▲악성코드 의심 앱 알림 ▲백신 정기검사 활성화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각종 악성코드로부터 고객 스마트폰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팸 특화 모바일 앱이다. 스팸 유형별로 차단 레벨을 3단계(상·중·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스미싱 앱 설정'과 '백신 자동실행 설정' 기능으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U+스팸차단 앱은 'U+스토어'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KT 홈피 1266만번 들락날락한 해커

KT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해 89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가 알려진 해킹 프로그램 외에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통해 KT 관련 홈페이지를 8만6000여 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민관합동조사단'이 KT에 남아있는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538GB)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약 1266만 번 접속한 기록(로그)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수사기관이 앞서 발표한 '파로스 프로그램' 외에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KT 관련 홈페이지 9개 도메인에서 8만5999건의 접속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미래부는 이를 확인한 후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KT에 보안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해커가 약 1266만 번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최대 34만1000여 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 측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롤’에 휘말린 블리자드 부활탄

‘디아블로3’ 확장팩 출시 기대작 ‘히어로즈’ 등도 줄줄이 가을 출격 대기중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했다.

블리자드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등의 온라인게임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지만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롤)’의 등장으로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25일 출시하는 ‘디아블로3’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를 필두로 가을께 서비스 예정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롤’과 비슷한 장르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기대작을 연이어 출격시킨다.

블리자드가 주요 라인업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롤’을 꺾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블리자드는 ‘영혼을 거두는 자’ 출시 하루 전인 24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이 게임의 출시 행사를 열고 사실상 ‘롤’에 선전포고를 했다.

24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진행된 ‘디아블로3’ 확장팩 출시 행사에 참여한 게이머들이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패키지를 받을 순서를 정하는 번호표 배포 시간인 오후 5시께 현장에 몰렸고 400여 명이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게이머들은 코스프레 전문팀인 ‘스파이럴 캣츠’가 게임 속 등장인물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타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켜봤다.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의 소장판과 일반판 패키지는 25일부터 옥션과 전국 대형 소매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3만7000원부터다.

신작은 2012년 출시돼 국내 이용자 43만 명이 넘어섰던 디아블로3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을 확장한 것이다.

디아블로3의 기존 다섯 영웅인 야만용사, 악마사냥꾼, 수도사, 부두술사, 마법사와 더불어 새로운 영웅 성전사가 합류한다. 거대한 중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용한 성전사는 악을 응징하는 강력하고 정의로운 힘을 가진 캐릭터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마라도 LTE도 ‘빠름’

KT 전송망 교체 2.3배 향상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도심 수준의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연 6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마라도에 섬 지역 전용 전송장비인 구형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최대 800Mbps까지 전송이 가능한 통합형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로 교체해 무선 전송망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장비 교체로 LTE 속도가 평균 2.3배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12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구형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신형 장비로 교체하고 안테나 위치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LTE 품질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KT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외곽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고품질의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차현 네트워크구축 본부장은 “도서 지역 통화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인프라 시설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강남 대치국제아파트 SK건설이 재건축 수주

SK건설은 지난 24일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올해 강남구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처음으로 발주된 프로젝트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지하 2층~지상 19층, 4개 동, 총 2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5개월이며, SK건설의 도급액은 647억원이다.

대치국제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대치·도곡역과 분당선 한티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인 데다, 남부순환로 등의 도로망을 갖춰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특히 휘문중고·단대부중고 등 명문 학군과 인근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 최고의 교육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또 코엑스와 강남세브란스병원·롯데백화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고, 도곡·한티근린·양재근린공원 등 자연 환경도 뛰어나다.

SK건설 관계자는 “대치국제아파트는 뛰어난 교통·교육 환경에다 생활편의시설과 자연 환경까지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SK건설의 우수한 시공 능력을 통해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에너지 1등급으로 ‘뽀송’하게 위닉스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으로 개발된 가정용 15ℓ 인버터 제습기 ‘위닉스뽀송’을 출시했다. /위닉스 제공

갤S5 2주 앞당겨 내일 출시

S4보다 싼 86만8000원

이통 3사 영업정지가 갤럭시 S5(사진) 출시일을 앞당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전략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5를 예정 출시일보다 2주 빠른 이번달 27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당초 갤럭시S5는 다음달 11일 전 세계 동시 출시될 계획이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조기 출시는 이통 3사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출시일이 27일로 정해진 것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현재 2개 통신사씩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KT는 다음달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2차 영업정지를 맞는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므로 갤럭시S5 출시일과 겹치지 않는다.

정부 권고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갤럭시S5 출고가는 S4보다 약 3만원 낮은 86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갤럭시S5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를 올가을쯤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폰6는 8~9월께 만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구글 나우’ PC서도 비서 서비스

모바일 세상을 사실상 평정한 구글이 온라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 ‘구글 나우’를 PC에 장착한다.

2012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처음 등장한 구글 나우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 날씨와 시간, 캘린더, 지메일 등의 정보를 사전 검색 없이도 미리 제공하고 추천해주는 개인 비서 서비스다.

25일 구글은 윈도와 맥 PC용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나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능을 작동하려면 구글 계정으로 크롬에서 로그인하면 된다.

구글은 지난해 4월 애플 iOS용 구글 나우를 출시해 모바일 무대를 확장한 데 이어 PC용 크롬에도 구글 나우 서비스를 장착해 온라인·모바일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

다만 이번에 서비스하는 구글 나우가 PC에서 활성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스마트폰 특화 서비스인 만큼 위치 정보가 중요한데 PC는 사실상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한편 구글은 스마트 손목시계에 구글 나우 기능을 접목했다. 이는 구글이 추진 중인 ‘안드로이드 웨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G전자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 ok

'바다 위의 LNG기지'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LNG FSRU의 시운전 장면. /현대중공업 제공

1기당 6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잭업리그'. /삼성중공업 제공

해외 수주 순항… 조선업계 힘찬 뱃고동

1·2월 95억달러 세계 1위… 국내 '빅3' 업체 올해 실적 호전 두드러질 듯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이 1, 2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조선 업황이 봄바람을 타며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 해운·조선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2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 42.3%, 금액으로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 빅 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실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목표 수주액을 107% 넘어선 261억 달러를 수주해 당초 목표로 잡았던 238억 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 36척, 가스선 42척, 탱커 28척, 벌크선 22척, 자동차운반선 12척, 특수선 7척, 반잠수식 시추선 1척 등 모두 148척을 수주했고 부유식 생산설비인 FPSO 1기, TLP 1기, FPU 1기, SPAR 1기 등을 수주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수주액은 25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모스형 LNG선과 멤브레인형 LNG선 등 두 가지 타입의 LNG선을 모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2년 1월 국내 처음으로 수주 가격만 2조원에 달하는 LNG FPSO 독자 모델인 '현대 FLNG'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바다 위 LNG 기지'로 불리는 LNG FSRU를 건조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LNG운반선 5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5척, LNG-FSRU 1척 등 상선 부문에서 모두 43척을 수주해 45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군수지원함 등 특수선 3척(10억 달러)을 수주했고, 드릴십 7척 등 해양플랜트 11기를 수주해 81억 달러의 수주액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3년 수주 현황 중 눈에 띄는 부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7척의 드릴십을 수주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동급의 천연가스 추진 LNG운반선 5척 모두를 싹쓸이했다. 2012년에는 한 척의 수주도 없었던 컨테이너선의 대해서도 2013년 19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월 현재 초대형 LPG운반선 8척, 쇄빙LNG운반선 1척 등 상선 15척, 총 17억4000만 달러(약 1조8600억원)의 누적 수주고를 올렸다.

특히 전 세계 조선업계의 관심사였던 '야말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가 지난 3월 17일 대우조선해양으로 결정되며 3억 달러 규모의 쇄빙 LNG선 시리즈 첫 계약을 이끌어 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목표 수주액은 145억 달러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2013년에 133억 달러를 수주해 역시 연간 수주 목표 13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드릴십 5척과 대형 FPSO 1척 등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89억 달러를 수주했고, 조선 시장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 14척과 LNG선 14척 등 44억 달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도 해양플랜트와 일반선 시장에 영업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심해 시추 활동이 증가하고, 노후선 교체 수요가 맞물린 시추설비 분야에서 시장 우위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시추설비의 대규모 발주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2013년 드릴십을 비롯한 시추설비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대형 잭업리그 시장에 진출해 시추설비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글로벌 유통기업 롯데쇼핑 43위·이마트 89위

매출 250위 국내 회사 4곳… 해외 진출은 취약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국내 유통기업 4곳이 글로벌 매출 상위 250개사에 포함됐다. 그러나 글로벌 유통기업에 비해 해외 진출 면에서 취약함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딜로이트코리아가 25일 발표한 '글로벌 250대 소매기업 경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위는 '월마트', 2위는 '테스코', 3위는 처음으로 '코스트코'가 차지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롯데쇼핑이 전년보다 5계단 오른 43위를 차지했고, 이마트가 50계단 상승한 89위에 올랐다. 이어 이랜드월드가 205위, GS리테일 233위로 순위권 내에 신규 진입했다.

이는 톱 250위 내 역대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롯데쇼핑과 이랜드월드는 최근 5년간 성장률 기준 상위 21위와 37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상의 관계자는 "어려운 내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기업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단 글로벌 소매기업보다 여전히 부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실적과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의 국내 진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성장을 위해 국내 유통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기업은 지난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온라인 부문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상위 250개사는 평균 매출액이 4.9% 성장한 가운데 본국 이외의 매출 비중이 24.3%로,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소매기업은 국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역내 매출액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6%, -0.7%씩 내리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액은 4.5% 올랐다.

/김태균기자 ksgit@

독일 제조업 잘나가는 5가지 비결은…

독일은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며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도 세계 3위에 달한다. 유럽 주요국들이 금융위기에 흔들리던 시기에도 유일하게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독일의 성공 비결은 우선 경기와 무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에서 R&D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독일의 폭스바겐이다. 이어 삼성전자(2위), 마이크로소프트(3위) 등 글로벌 IT기업과 노바티스(7위)와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뒤를 따르고 있다.

폭스바겐은 1980년부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5% 룰'을 지켜오고 있다.

또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통한 높은 노동 생산성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1위, 노사 관계 생산성은 8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8위, 노사 관계 생산성은 56위를 기록했다.

'기술은 마르지 않는 금광과도 같다'라는 독일 속담에서 보듯이 독일은 60%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현장이 결합된 형태의 직업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한다. 독일의 명품차로 잘 알려져 있는 BMW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800여 명의 인턴을 훈련시키고 있다.

독일은 가족기업 중심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한다. 독일에는 무려 1500개가 넘는 2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며 독일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들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각 제품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유달리 많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 기업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 4~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탁기자

답변 넘어 대화 돼야 6등급

토익스피킹 등급별 공략법

"토익 스피킹 준비는 어찌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공채 시즌이 시작되면서 구직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삼성·LG·현대차 등 주요 그룹에 입사하려면 토익스피킹 등 영어 말하기 시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YBM어학원 강남센터 이민하(케이트) 강사의 도움을 받아 토익스피킹 등급별 공략법을 알아본다.

◆5등급, 반복 훈련이 살 길=삼성(이공계), LG, 제주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최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급이다. 5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에 대해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문장 속에 다양한 표현을 섞어 유려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숙지하고 있는 단어와 문법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 있는 파트를 선택해 집중 연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답변 준비 시간과 주어진 자료가 비교적 충분한 파트 2, 4, 5 등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짧은 기간에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YBM어학원 강남센터 이민하 강사가 토익 스피킹 강의를 하고 있다.

◆6등급, 정확한 문장 만들어야=지난해 하반기 구직자들의 평균 스펙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하지만 삼성(인문계), 현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구직자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점수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따라서 '답변'이 아닌 '대화'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토익스피킹은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이지만 평가는 채점관이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창함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항인 파트 5에서는 단순히 해결 방법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덧붙이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7등급, 예시 충분히 활용해야=무역, 해외 영업, 마케팅 직무, 항공사 등에서 근무하려면 7등급 이상이 필수다.

7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답변 패턴을 벗어나 디테일한 설명을 곁들여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문제에서 언급했던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언급해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유형인 파트 5, 6은 각별히 신경 써서 답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원어민 수준의 표현과 유창함을 보여준다면 유리하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카페트 알바' 멍석 깔아줘봐

SNS활용한 일자리 5종

'카페트(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아르바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카페트 알바'는 개성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새로운 '꿀알바'로 떠오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한 카페트 알바 5종 세트를 알아본다.

◆영어·용돈을 한번에=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알바가 화제다. 외국인 문화관광 교육 벤처기업인 'k-헤븐'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카카오톡, 페이스북상에서 응대해줄 수 있는 알바생을 모집 중이다. 토익 700점 이상에 수능 외국어 3등급 이상 정도의 실력이면 지원할 수 있다. 월 급여는 120만원 정도다.

◆맛집 탐방하고 돈도 벌고=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연전시회, 극장, 음식점 등 각종 매장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체험과 리뷰를 SNS에 남기는 일을 주로 한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익힐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연계된 친구 수나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채용에 유리하다. 뉴로마케팅에서 31일까지 홍보체험단을 모집 중이다.

◆언론사 알바 해볼까=각 언론사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24시간 동안 사건과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알바생을 상시 모집 중이다. 나이나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1일 2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를 선호하며 언론정보나 신문방송학 전공자는 우대한다.

◆SNS 세일즈도 가능=SNS를 통해 기업 제품을 대신 파는 알바도 인기다. 기업에서 제작한 제품 이미지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용돈벌이나 투잡으로도 가능하다. 유통업계에 관심이 있거나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보수는 판매 단가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 내외를 지급받는다.

◆광고 카피 만들어볼까=소셜미디어 마케팅을 꿈꾸는 대학생에게 적합한 알바다. 각종 이슈 발굴 능력, 센스 있는 카피 작성 능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시급은 5500원에서 6000원 선이다. 현재 코어게임에서 카피 창작 알바를 모집 중이다.

/이국명기자

두근두근 '버킨 백' 향한 첫 한 땀

서승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가죽공예 ①

중형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억' 소리 나는 가방이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이 바로 그것이다. 에르메스 가방은 가죽학교 3년, 공방 2년 등 총 4만3000시간의 연습 시간을 쌓은 장인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검증된 장인은 20여 시간에 걸쳐 170년 전 왕실에 마구(馬具)를 납품했던 새들 스티치(Saddle stitch·말 안장 꿰매는 방식)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가방을 완성한다. 그 증표로 장인의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데스크 번호를 가방에 찍는다. 명품 브랜드 전문 리서치기관 알파밸류에 따르면 에르메스의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이곳의 장인 1명의 가치는 330만 유로(약 50억원)에 달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의 사자성어 '등고자비'를 떠올리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아고스티노 가죽학교에 찾아갔다. 부업 또는 창업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 독자에게 소개하는 '투잡체험기'를 통해 가죽 공예의 최고봉으로 인식되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를 반신반의하면서 말이다.

아고스티노 가죽학교에서 가죽공예로 완성한 버킨백 /손진영 기자

첫 수업은 가죽 공예에 입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채워졌다. 먼저 연장에 대해 배웠다. 일상생활에서 구멍을 뚫던 용도로 익숙한 송곳은 가죽 공예에서는 표시 기능을 담당한다. 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교한 작업을 위해 송곳을 더 선호한다고 강사는 설명했다. 이어 재단을 시작으로 본딩·그리프 작업·바느질·엣지코트 바르기의 제작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오후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까지 공방을 지키며 또 한 명의 장인을 꿈꾸는 학생들 사이로 "엣지 피할은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해요" "망치로 잘 눌러야 한다"는 강사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전해졌다. 최상급 악어 가죽을 사용한 버킨백은 700조각의 가죽을 2만6000번의 바느질로 연결해 완성한다는데 기자의 두 달 후 결과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ssh814@

"삼성고시 막차 타자" SSAT 수험서 불티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대비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삼성그룹이 서류전형 없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게 이번 상반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1일부터 23일까지 SSAT 문제집이 5699권이나 팔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추정해보면 7640여권으로 지난달(1890여 권)보다 304.2%나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2012년 3월에는 전달(1650여 권)보다 60.6% 많아진 2650여 권이, 2013년 3월에는 전달(2250여 권) 대비 158.2% 늘어난 5810여 권이 팔린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증가세다.

이는 삼성그룹 채용제도가 내년에 바뀔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구직자들이 올해 SSAT를 '서류 장벽'이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삼성그룹은 학점 3.0, 직무별 어학 능력, 대학 졸업(예정) 등 기본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SSAT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해왔다.

한편 삼성그룹은 28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다음달 13일 서울·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과 미국 뉴어크·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3개 지역에서 SSAT를 치를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치킨맛도 일품인 맥줏집 '94번가'

맛집 소문난 선릉직영점서 가맹사업 설명회

오븐구이 치킨 브랜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엔푸드에서 저온 숙성 저장고가 있는 맥주 전문점 '94번가(94street)' 가맹사업을 전개한다. 94번가는 생맥주 저장통 자체를 대형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저장통을 실온에 보관하다 맥주를 따를 때 급속 냉각기를 사용해 억지로 시원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과 비교해 맥주 맛에 큰 차별성을 보인다.

94번가는 2012년 7월 선릉역 부근에 직영점을 오픈해 운영해왔으며 밝고 모던 빈티지한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굽네치킨만의 다양한 치킨 요리 및 노하우로 일반적인 치킨 메뉴와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고 있다. 선릉역 맛집으로 유명해진 94번가는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입소문만으로 이미 3개의 가맹점을 오픈했다. 또 이달 송파와 인천 송도 가맹점이 오픈했으며 다음달에는 속초·오창·나주 등에도 가맹점을 열 예정이다.

94번가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선릉직영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계약 시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방에 있는 예비 창업주들을 위해 앞으로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광역시급에서도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1644-9792)와 홈페이지(www.94st.co.kr)를 통해 가능하며 예비 창업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창업 상담을 진행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허창원 지엔푸드 신규사업부 차장은 "그간 보편적인 맥주 전문점이 경쟁하던 시장에 94번가가 진입하면서 앞으로는 맥주의 맛과 차별화된 치킨 요리로 경쟁하는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94번가는 앞으로 가맹 사업을 활성화해 2015년까지 100호점 오픈, 2017년까지 30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인기자

발병률 4배…잠복 확인을!

박성환 교수의 '류머티즘 환자 결핵 관리 요령'

지난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었다. 결핵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아직까지 9배나 높은 실정이다. 그 중 결핵 고위험군으로는 류머티즘 질환·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만성신부전 등의 만성 질환군이 꼽히는데 특히 류머티즘 질환 환자의 경우 결핵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박성환(사진) 서울성모병원 류머티즘내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다.

Q.류머티즘 질환 환자들이 특별히 결핵에 취약한 이유는.

A.류머티즘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류머티즘 질환 환자는 감염 질환에 대응할 적응력이 낮을 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결핵과 같은 감염 질환에 취약하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잠복결핵 감염자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Q.그렇다면 류머티즘 질환 환자들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결핵은 폐·신장·흉막·척추 등에서 발병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폐결핵은 감기와 구분이 어려워 초기 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잠복 결핵 환자의 경우는 미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류머티즘 질환 환자 중 생물학적 제제인 TNF-억제제를 투여하고 있거나 투여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잠복 결핵 감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A.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결핵 피부 반응검사(투베르쿨린 반응검사)와 혈액검사(인터페론검사)가 있다. 피부 반응검사가 보편적으로 이용됐으나 지난해부터 면역 억제제, 즉 TNF-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류머티즘 질환 환자들은 혈액검사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잠복 결핵의 치료는 약제를 이용한다.

Q.류머티즘 질환 환자들이 결핵 관리에서 주의할 점은.

A.류머티즘 질환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잠복 결핵 검사를 실시해 결핵을 예방해야 한다. 또 류머티즘 질환 치료에 있어서도 결핵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TNF-억제제인 에타너셉트·인플릭시맙·아달리무맙 제제 중 수용성 수용체인 에타너셉트 제제가 단일 항체인 타 치료제보다 결핵 유병률이 3~4배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만약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받는 도중 결핵 감염을 진단받으면 생물학적 제제 투여를 중단하고 결핵을 먼저 치료해야 하고 치료 후에는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에타너셉트 등으로 치료제를 전환하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박승희 스케이트 교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5일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박승희(윗줄 왼쪽 다섯째) 선수를 초청해 어린이들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를 벌였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공

포카리스웨트 스포츠타월 첫 판매

동아오츠카 온라인몰 '반값'

동아오츠카는 스포츠의 해를 맞아 그동안 홍보용으로만 사용했던 '포카리스웨트 공식 스포츠타월'을 전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포카리스웨트 타월은 140㎝×68㎝의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동아오츠카 온라인 몰(http://www.donga-otsuka.co.kr/shop)에서 출시 기념으로 1000장에 한해 50% 할인된 1만7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은정 동아오츠카 홍보팀 과장은 "포카리 타월은 별다른 홍보 없이도 출시 당일 300건이 넘는 판매 기록을 세우는 등 호황을 이뤘다"며 "고객 사은 행사로 시작한 것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로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철기자

임산부 입 속 세균 감염땐 조산 위험

임신중 구강관리 이렇게

임산부의 구강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입속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인해 치주병 유발은 물론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확률이 높아지는 등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강 관리의 기본은 올바른 칫솔질이다. 잘못된 칫솔질로 플라크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치아에 달라붙어 치석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치주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임산부들의 경우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되 잇몸의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칫솔을 선택해 올바른 칫솔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치약을 고를 때는 치약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이가 누런 사람은 항(抗)치석 성분인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충치 예방에는 일불소인산나트륨과 자일리톨 성분을, 시린 이는 치아에 방어벽을 형성해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해줄 수 있는 염화스트론튬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선택하면 좋다.

구강세정제는 칫솔질과 치간 세정을 통해 제거되지 않은 세균들을 없애 충치를 예방하고 입 냄새를 제거한다. 구강세정제를 1주일에 3~4회 치간세정기에 넣고 사용하면 세균 제거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치주과학회 김남윤 공보이사는 "임신 중에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잘못된 속설들로 치과 방문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많은데 평소 꾸준한 구강 건강관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정혜인기자

저지방 '액티비아 업' 출시

요구르트 브랜드 액티비아는 국내 편의점 소비자를 위해 개발한 저지방 드링킹 요구르트 '액티비아 업(UP)'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딸기·바닐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 함량을 줄여 다른 간식거리와 함께 먹어도 부담이 적다. 또 배 속 편안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 특허 유산균 액티레귤라리스가 담겨 장 건강까지 똑똑하게 챙길 수 있다. 소비자가 1500원.

이대병원 '여성건강 캠페인'

女전용 암병원·검진센터 개소 5주년 맞아 전개

이화여대 의료원이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여성 건강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지난 24일 이대여성암병원 다목적실에서 이대여성암병원,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개최하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커팅식에는 이순남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의료원장은 국내 여성 교육 및 연구·진료를 선도해온 전통을 계승하고 여성 질환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성 건강 캠페인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먼저 올바른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 여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여성 건강 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를 발간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을 제작해 여성들의 건강 길잡이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원은 현재 암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해온 정서 치유 프로그램 '파워업(Power-up) 강좌'를 활성화하고 국선도, 노래교실, 합창반 등 환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명의와 함께하는 여성 암 환자 힐링 여행' '청소년 자살 예방 세미나' '달빛 소나타 생명사랑 걷기운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맥주회식 이왕이면 맛있게

메뉴 맛깔난 집 모여!

날씨가 따뜻해지고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겨울철 매서운 바람에 곧장 귀가했을 직장인들이 지인과 함께하는 '한잔 타임'의 공간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대개 가벼운 맥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저녁 식사 겸 맥주와 최고의 궁합을 선사할 '칼퇴야(夜)'('칼 퇴근'을 부르는 '야'식)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놀부NBG의 '더(The)놀부족발 화덕구이'(사진)는 400도 화덕에서 복사열로 구워내 촉촉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건강과 미용에 좋은 슈퍼푸드 마늘과 족발의 결합으로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잡은 '마늘족발', 매운맛과 불 맛이 어우러진 '화덕매운족발', 먹기 좋은 사이즈에 매콤한 맛이 맥주와 잘 어울리는 '미니불족' 등이 있다.

에스엠푸드의 '착한 문어치킨'은 해산물과 치킨의 이색 결합으로 눈길을 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문어와 기름기를 쫙 뺀 담백한 치킨이 어우러진 메뉴로 섭씨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해 일반 치킨보다 칼로리가 낮고 특제소스로 사용해 담백함과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닭껍질튀김과 감자튀김·콘샐러드·주먹밥을 제공해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스쿨푸드의 명란크림떡퐁듀는 튀긴 떡과 메가크런치, 신선한 샐러드를 고소한 저염 명란 크림에 듬뿍 찍어 먹는 퐁뒤 스타일의 떡볶이다. '갈비어부밥'은 팬에 양파를 골고루 깔고 그 위에 밥을 얹은 후 얇게 저민 돼지 갈비를 덮었고 구운 알감자를 올려 영양까지 더했다.

/정영일기자 prms@

타이어처럼 고양이 발처럼…밑창 전쟁

진화하는 러닝화제품 기능 접목 디자인 주목

신발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각종 러닝대회가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러닝화의 디자인과 기능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러닝·워킹·트레킹·농구·골프 등 신발이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적합한 밑창 소재가 중요해졌고 밑창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스포츠 업계는 가벼운 러닝화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발의 착용감과 쿠셔닝 기능에 주력하며 신발의 밑창에 과학적인 기술을 곁들인 제품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발의 밑창에 쿠셔닝과 충격 흡수가 뛰어난 '압축가공수지(EVA) 소재'를 뛰어넘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추세다.

리복은 Z급의 고속 주행용 타이어에서 영감을 받은 러닝화 지퀵(Z Quick)을 최근 출시했다. 지퀵은 아웃솔(겉창)이 타이어의 절개 구조를 닮아 러닝 시 발의 움직임 변화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부드러운 러닝, 특히 코너링에서 강력한 제어력을 발휘한다. 미드솔(중창)은 속도를 내거나 줄일 때 푹신한 쿠션 기능을 제공하며 갑피에 적용된 나노웹(Nano Web) 구조와 무봉제 메시 갑피 소재는 통기성과 지지력을 향상시켰다.

요즘 러닝족들에게 화제를 모은 러닝화인 아디다스의 스프링블레이드는 경사진 형태의 하이테크 폴리머로 만든 16개의 고탄력 블레이드를 밑창에 적용해 뛰어난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 이노베이션 팀이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내는 밑창의 스프링을 위해 6년이라는 제작 기간 동안 탄도 테스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제품이다.

푸마가 출시한 모비움 엘리트 글로우 러닝화는 고양이의 발바닥에서 영감받아 설계됐다. 뛰어난 쿠셔닝과 유연성이 특징인 이 신발은 아웃솔에 장착된 8자 형태의 모비움 탄성 밴드가 탄력을 극대화하고 발바닥처럼 보이는 익스펜션 파드(Expansion Pods)는 쿠셔닝과 유연함을 제공해 안정성을 향상시켰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청정원 '묘목 1만 그루 나눔' 행사 대상 청정원은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4 희망의 나무 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공기정화 식물을 비롯해 총 16종의 묘목 1만 그루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대상 청정원 제공

샘표 '유기농 콩농장' 봄·여름·가을 체험 손짓

일반 가족·유치원 대상 30일까지 신청 접수

샘표에서 '유기농 콩농장'에 참여할 가족과 유치원을 모집한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기농 콩밭과 서울 본사에서 열리는 샘표 유기농 콩농장은 4월 참가자 발대식 후 콩의 파종·수확·타작 등의 농사 체험과 함께 허수아비 만들기, 된장 요리교실, 가을 운동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11월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샘표 아이장 홈페이지(www.ijang.org)에서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60가족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가족당 10만원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1000여 명을 함께 모집한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가족 모집과 동일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선정된 유치원에는 유기농 콩농장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우리 장에 대한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된장학교'를 함께 진행한다.

/정영일기자

'컬러 앤 네이처 젤광택' 출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젤 광택 네일을 손쉽게 완성해주는 '컬러 앤 네이처 젤광택' 30종을 출시했다.

컬러 앤 네이처 젤광택은 우수한 광택감과 선명한 색상이 특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고광택 네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UV 젤 성분이 함유돼 젤 특유의 도톰한 질감을 살려주고 일반 네일보다 지속력이 오래 유지되며 동백오일이 손톱에 보습과 윤기를 부여해 손상된 손톱을 보호해준다. 또 기존의 젤 네일이 UV 기기가 있어야만 건조가 되는 점을 보완해 자연광·형광등에서도 말릴 수 있도록 했다. 지울 때는 전용 리무버가 아닌 일반 리무버를 사용해도 깨끗하게 지워진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새로 나온 책

건강

20대가 부러워하는 중년의 몸만들기
김원곤/덴스토리

몸짱 의사로 유명한 김원곤 서울대병원흉부외과교수의 건강 비결을 담았다. 저자는 중년 성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짧고 간결한 문제와 다양한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운동과 관련된 일화·그림 등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가정·생활

작은 학교의 힘
박찬영/시공사

현직 교사인 저자가 우리나라 초등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자아비판은 물론 교육계의 비밀까지 들춰내며 큰 학교 위주로 돌아가는 현행 공교육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나아가 공교육의 틀 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사례들도 소개한다.

자기계발

돈 문제 솔루션
진 플레밍 외/비즈니스맵

책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돈과 윤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줄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얽인 돈 문제를 100여 개의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 쉬쉬해온 돈에 관한 모든 문제에 현실적인 해결책과 조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
미야지마 히로시/너머북스

40년 넘게 한국사를 공부한 저자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양반'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히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이 맞닿은 맥락을 짚어낸다. 우리나라 전통과 역사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 양반을 통해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백수
정운현/비아북

'중년의 실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도,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중년들에게 실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체득한 18가지 방법과 팁을 또래에게 이야기하듯 건넨다.

에세이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마루야마 겐지/바다출판사

삭막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껴 시골로 돌아가 인간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는 귀촌·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시골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라는 직언을 날린다. 시골로 내려가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진정 빛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보자.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서
피터 트라튼버그/책세상

미국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평가를 받는 피터 트라튼버그의 자전적 에세이다. 저자는 집을 비운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양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그 과정에서 플라톤과 프루스트, 성경과 신화를 넘나들며 사랑과 헌신에 대해 성찰한다.

매주 수요일 인문학을 만나는 저녁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은 다음달 9일부터 '교보인문학석강'을 새롭게 개편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상·하반기 각 2강좌씩 총 4개 강좌로 구성되고, 강좌당 3회 연속 강연을 진행해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또 강연 내용은 인터넷 영상 및 전자책 등의 디지털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4월엔 우리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동양학 강연으로 꾸며진다.

제1강좌 조용헌 교수의 강연은 '한국의 선비정신과 풍수사상'이라는 주제로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마련된다. 제2강좌는 인문학의 정수인 문학 분야로 문학평론가 유종호 교수가 '문학의 여러 얼굴'이라는 주제로 6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3회에 걸쳐서 진행한다. 선착순 무료 강연이며, 강연 당일 오후 7시부터 입장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prms@

이토록 시린 뉴욕은 첨이야

도망자·백마·소녀의 서사 응축하는 묘한 도시…NYT "25년래 최고 소설"

'윈터스 테일'은 독특한 분위기의 소설이다. 뉴욕이 배경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뉴욕과는 다르다. 윈터스 테일의 거대한 뉴욕은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린다는 정체불명의 구름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춥고 고독한 도시로 비춰진다.

그런 뉴욕에서의 어느 겨울날, 조직을 배신해 도망자가 된 피터 레이크와 마구간에서 도망친 백마 한 마리가 우연하게 만난다. 피터 레이크는 위기의 순간 백마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고 백마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다. 그는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범죄 행위'라 생각하고 한 백만장자의 집에 침입하지만 여기서 만난 이상한 소녀 베버리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이어 초월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이 소설은 겨울날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중에 내뱉는 한 줌의 입김 같은 소설이다. 서사는 머물렀다 잡을 새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같이 시종일관 부옇게 흩어진다. 쉽게 책장을 넘기기는 어렵지만 책 속에 담긴 삶과 사랑·정의·문명에 대한 상징과 묘사 하나하나는 명징하게 다가온다. 판타지 소설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묘사들이 구성하는 도시의 풍경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된다. 뉴욕은 이 소설 안에서 단순한 배경인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여한다. 작품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도시가 그 인물들의 삶을 결정한다. 그렇게 저자는 도시 그 자체의 삶에 대해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책의 가장 독특한 점이다.

윈터스 테일 1, 2권
마크 헬프린/북로드

이 소설은 뉴욕타임스가 지난 25년간 최고의 미국 소설로 선정한 바 있으며 러셀 크로·콜린 패럴·제니퍼 코널리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국내 개봉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해와 달 사이 '시간의 문지기'

동이 터오르는 동쪽 하늘을 보며, 도성의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을 지나던 옛 사람들. 이제는 달조차 가리며 불야성을 이루는 동대문을 찾는 현재의 우리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흥인지문이 이렇게 닮은 듯 다른 서로를 만나게 한다. –'내가 사랑한 풍경 레시피'(김재왕·윤돌/리얼북스) 중 –

/황재용기자 hsoul38@

대자보 그 후 다시 묻는 '안녕들 하십니까'

화제의 책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오월의봄

지난해 12월 10일 고려대학교에 의미심장한 대자보 하나가 붙었다. 대자보 첫머리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철도 노동자들의 대량 직위 해제와 마을에 들어선 고압 송전탑에 반대하며 음독 자살한 주민의 이야기 등으로 시작했다. 이 대자보 하나가 힘을 얻고 반향을 일으켰던 결정적 이유는 그 뒤에 이은 문장들 때문일 것이다. 88만원 세대, IMF를 겪은 부모의 자녀들은 다름아닌 지금의 대학생들이다. 그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시대를 공감하며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을 들춰냈다. 그러면서 별탈 없이 살았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다음날 이 대자보 옆에는 40장이 넘는 화답 대자보가 붙었다. 이 소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10일 만에 페이스북 '안녕들 하십니까' 페이지에 25만 명이 모였다. 전국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붙인 수백 장의 대자보 중 200여 장을 추려 책으로 묶었다. '안녕들 대자보' 이후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담아 대자보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손글씨 대자보 한 장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냈을까? 안부를 물으며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그 말 걸기에 화답하면서 스스로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확인하게 된 것이다. 손글씨 대자보 화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정치'에서 비롯한 사회운동을 만들어갔으며 그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남게 됐다. 책의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묻는다. 안녕들 하냐고 묻는 질문이 정말 모두에게 묻는 것이냐고. 모두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냐고. 정말로 괜찮은 것이냐고.

/김학철기자 kimc0604@

"내 음악에 갇혀있던 나를 꺼냈죠"

정규 11집 '폴 투 플라이' 발표한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49)이 아름다운 도전에 나선다. 4년 만에 정규 11집 '폴 투 플라이'를 선보인 그는 올해 데뷔 25년째를 맞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신인가수 못지않다. 1989년 스물다섯 살의 나이로 1집 'BC603'으로 데뷔해 공연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덩크슛'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플란다스의 개' '천일동안' 등 10장의 정규앨범과 14장의 스페셜앨범을 발매하며 무수한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그는 "2010년 10집 '드라마이저'를 발표하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주체할 수 없는 창의력 때문에 이번 앨범을 발매했다"고 말했다.

앨범 발매 전까지 그의 앨범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타이틀곡 '너에게만 반응해'의 기타·드럼·베이스 등을 소속사 공식 페이스북에 트랙별로 공개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환은 "대중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사운드 메이킹 노하우와 레코딩, 믹싱 비법을 알려주고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응은 뜨겁다.

음악 친구인 윤상은 "리얼 연주에 갈증을 느껴온 후배 뮤지션들을 위한 이승환의 도발적인 서비스"라고 짧지만 강렬한 촌평을 남겼다. 작곡가 김형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연주자들도 미국 최고의 세션들이네. 음악을 함께 즐기고 싶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자세다. 트랙들도 너무 좋아"라고 적었다.

이승환은 "인디 뮤지션과 록밴드 후배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음악 시장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승환은 카카오톡에 짤방(짤림 방지)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앨범 전편 대중성 초점 후편은 록적
창의력 주체 못해… 새 트렌드도 담아내
열정 무한대… 70세까지 공연 하고싶어

◆ 모든 열정 쏟아붓다

이승환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11집 '폴 투 플라이'의 의미는 남다르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음반 제작을 했고, 4억8000만원의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했다.

"10집이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죠. 그래서 이번 앨범은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만 완성도만큼은 놓치지 않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엔지니어링 작업을 했죠. 완성도 면에서는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마스터링했어요."

여기에 자신의 음악적 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곁들여졌다. 현대적 감각을 끌어들여 시대와 호흡하려는 시도도 묻어난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팝재즈 싱어 바우터르 하멜과 앨범 작업을 했고 유성은과 러쉬·이소은 등이 피처링에 참여했어요. 젊은층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죠.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그동안 저 자신만의 음악 속에 갇혀있었다는 거였어요."

◆ 타이틀곡 연주 트랙별 공개

이승환은 그동안 대다수의 곡을 직접 작사·작곡해왔다. 이 때문에

◆ 4년간 40곡 작업… 20곡 수록

이번 앨범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어 공개된다. 전편 '폴 투 플라이-전'이 가요계 트렌드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편은 이승환의 음악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지난 4년간 총 40여 곡을 작업해 그중 20여 곡을 이번 정규 11집으로 추려냈다"며 "전편이 대중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편은 록적인 음악과 음색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000회에 가까운 공연 무대에서 상상 이상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냈다. 그는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70세까지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스타 PD·배우+감각적 영상… 지상파 제친 '밀회'

3회 시청률 3.12%…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 근소한 차 앞서

'밀회'가 월화드라마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 24일 JTBC 월화극 '밀회' 3회 시청률이 닐슨코리아 기준 3.12%를 기록하며 같은 날 KBS2 '태양은 가득히'의 시청률(3.0%)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월화드라마 3위 자리를 차지했다.

마흔 살 여자와 스무 살 남자의 불륜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화제를 일으켰던 '밀회'는 3회 만에 오혜원(김희애·사진)과 이선재(유아인)의 키스신이 등장하는 등 빠른 전개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종편 시청 거부 운동까지 일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밀회'가 기록 중인 3%대의 시청률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밀회'는 실력이 검증된 PD와 작가, 스타 캐스팅, 감각적인 영상 등을 무기로 초반 시청률 사냥에 성공했다.

'밀회'는 지난해 '아내의 자격'으로 '찰떡 호흡'이 검증된 안판석 PD와 정성주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미 시청률을 담보한 상태였다.

안 PD는 과거 MBC에서 '짝' '하얀거탑' 등을 연출하며 뛰어난 연출력을 선보여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등 일찌감치 스타 PD로 자리매김했다. 정성주 작가 역시 1990년대 MBC '우리들의 천국' '신데렐라' 등을 집필하며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다.

MBC를 떠난 두 사람은 지난해 JTBC 수목극 '아내의 자격'에서 '강남 엄마'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사교육 열풍을 꼬집으며 불륜 코드 속에 사회문제를 탁월하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PD는 제작발표회에서 "남의 시선만 신경 쓰고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작품 세계를 드러낸 바 있다.

또 김희애와 유아인의 만남에 더해 김혜은·심혜진 등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가 연일 화제를 모으며 '삼파전'으로 불렸던 월화드라마 판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조영남 '아버지의 노래' 부른다

5월 전국 투어… 배우 김성민 등 화려한 게스트 출연

가수 겸 예술가 조영남(사진)이 가정의 달인 5월 전국 콘서트 투어에 돌입한다.

데뷔 45주년을 맞은 지난해 10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서 2회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과시한 조영남은 5월 8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을 시작으로 11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극장, 18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등에서 어버이날 전국투어 '아버지의 노래'로 팬들과 만난다.

국민과 호흡해온 지난 40여 년을 되돌아보며 이제 피란길 아버지보다 많은 나이가 돼 못다 부른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의 노래를 부른다.

이번 투어는 화려한 게스트의 출연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배우 김성민, 테너 양인준, 뮤지컬 배우 박동하, 모델 박태준, 테너 임상훈으로 구성된 한국판 일디보인 팝페라 그룹 페도라 및 팝페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소프라노 박정희, 베르디 콩쿠르 등 17개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의 바리톤 박경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문의: 02)749-1300 /양성운기자 ysw@

동방신기가 객실을 돌며 이벤트를 하는가 하면(큰 사진) 열차 내 안내 방송도 직접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동방신기, 팬과 기차 타고 낭만여행

동방신기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팬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동방신기는 24일 '동방신기 10주년 기념 기차여행' 이벤트를 열고 특별 초대된 180명의 팬들과 함께 전남 곡성으로 기차여행을 떠났다. 이번 이벤트에는 평일임에도 1만여 명이 응모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중국·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팬들이 참여해 동방신기의 인기를 확인시켰다.

이번 여행을 위해 일명 '동방신기 열차'를 편성해 하루 동안 서울역과 곡성역을 오가는 특별 노선으로 운행됨은 물론 열차 내부 역시 기념 로고가 프린트된 헤드레스트와 동방신기 사진 등으로 꾸며져 시선을 끌었다. 이동 시간 동안 동방신기가 직접 안내방송을 하고 객실을 돌며 출석 체크, 트럼프 카드 이벤트를 펼치는 등 다채로운 순서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동방신기는 곡성역에 도착한 후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장미공원을 방문해 레일바이크 체험 및 사인회, 기념사진 촬영 등을 통해 팬들과 보다 가깝게 교감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정규 7집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동방신기는 다음달 22일 요코하마 아레나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를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suno@

가비엔제이·장미여관 나란히 신곡 발표

실력파 여성 보컬그룹 가비엔제이(사진)와 남성 밴드 장미여관이 25일 나란히 신곡을 발표했다.

가비엔제이는 올해 첫 싱글 '별일 없니'의 음원을 공개했다. 현 편곡자 김대홍의 서정적인 스트링 선율이 인상적인 R&B 템포의 발라드로 짙고 섬세한 가비엔제이의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다.

가비엔제이의 '해피니스' '연애소설', KCM의 '너에게 전하는 9가지 바람' 등 히트곡을 만들어낸 민명기가 작곡했다. '썸' '그대가 분다' '못해' '착해 빠졌어' 등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작사가 민연재가 참여했다.

가비엔제이는 "이별한 연인들의 모든 일상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남아있다는 소소하고 보편적인 가사가 슬픔을 배가시키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장미여관은 신곡 '트위스트 킹'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인기 프로듀서 주영훈의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90년대 콜라보'에 수록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 곡을 발표했다.

장미여관이 부른 '트위스트 킹'은 1996년 발표돼 각종 음악차트 1위를 석권했던 터보의 '트위스트 킹'을 재해석한 곡으로, 편곡과 창법 모두 복고적으로 표현했다.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시키는 육중완과 강준우의 창법은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감상하는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씨엘 참여 '리세스' 빌보드 톱10 진입할 듯

2NE1의 씨엘(사진)이 미국 팝 시장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씨엘이 참여한 세계적인 DJ 스크릴렉스의 첫 번째 정규앨범 '리세스'가 27일 공개되는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톱 10 진입이 예상된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빌보드 역시 '리세스'가 18일 공개 직후 미국 아이튠즈 메인 앨범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을 근거로 최근 이같은 전망을 했다.

씨엘은 2NE1 정규 2집 '크러시'가 빌보드 앨범차트 61위로 역대 K-팝 앨범 최고 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스크릴렉스 앨범으로 톱 10에 오를 경우 글로벌 팝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씨엘은 2NE1의 멤버로서 미국의 톱 프로듀서인 윌아이엠의 앨범 '#윌파워'에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비버, 마일리 사이러스와 함께 피처링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인 팝스타와의 작업을 활발히 해왔다.

한편 씨엘은 다음달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NE1 월드투어로 현지 팬들과 만난다. /유순호기자

대한민국 노처녀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막돼먹은 영애씨 13
tvN 다큐드라마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 / 3월 27일 첫방송

‘황태자’ 김동준

뮤지컬 ‘궁’ 주인공 캐스팅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 김동준(사진)이 뮤지컬 ‘궁’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25일 김동준의 소속사 스타제국 측은 “김동준이 뮤지컬 ‘궁’에서 황태자 신 역으로 캐스팅됐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궁’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웹 드라마 ‘후유증’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준 바 있는 김동준은 ‘궁’에서 주연에 캐스팅됐다.

한편 동명의 인기 순정만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궁’은 서울에서 초연한 이래 5년간 일본에서 매년 재연해온 인기 뮤지컬로, 5월 10~24일 도쿄 아카사카 ACT 시어터에서 상연된다. 이번 공연에는 제국의 아이들 멤버 김동준을 시작으로 샤이니 태민, 유키스 멤버들이 잇따라 출연한다. /양성운기자 ysw@

‘예능계 블루칩’ 박은지

‘오늘 밤 어때?’ ‘강적들’ 등 활약 속 ‘꿀단지’ MC도 꿰차

방송인 박은지(사진 왼쪽)가 여자 MC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박은지는 오는 28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프로그램 ‘달콤한 정보쇼 꿀단지’에 장성규(오른쪽) 아나운서와 공동 진행자로 발탁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MBC 간판 기상캐스터로 활약했던 박은지는 프리 선언 이후 각종 프로그램에 섭외되며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현재 그는 SBS 라디오 ‘박은지의 파워 FM’, 트렌드E 채널 ‘오늘 밤 어때?’, TV 조선 ‘강적들’ 등을 진행하며 맹활약 중이다.

박은지는 “‘달콤한 정보쇼 꿀단지’의 진행을 맡아 기쁘다”며 “시청자에게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

박해준·최정우·정인기 ‘닥터 이방인’ 출연

박해준 최정우 정인기

배우 박해준·최정우·정인기가 다음달 28일 첫방송되는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 출연을 확정했다.

박해준은 ‘닥터 이방인’에서 북한 대남 공작부 요원 차진수 역으로 안방극장 신고식을 치른다. 영화 ‘화차’에선 잔혹한 사채업자로, ‘화이’에선 다섯 아빠 중 냉혹한 총잡이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독한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며 이종석을 압박한다.

최정우는 명우대학병원의 리틀 오준규(전국환)를 꿈꾸는 전임 흉부외과 과장 문형욱 역을 맡는다. 권력과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 수 있는 속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종석을 명우대학병원으로 끌어들이며 극을 이끈다.

정인기는 20년 이상 장석주(천호진)를 보필하는 충직한 비서 김태술로 분한다. 그는 장석주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모습을 섬세한 감정 연기로 표현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웰메이드 드라마>

‘신의 선물’ 시청률 왜 이래

답답한 전개·민폐 캐릭터로 스릴러 장르 한계 노출… 10%의 벽 못 넘어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하 ‘신의 선물’)이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호평에도 답답한 전개와 민폐 캐릭터로 스릴러 장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청률 1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신의 선물’은 물 샐 틈 없는 짜임새로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보여준다. 극은 김수현(이보영)이 딸 한샛별(김유빈)이 살해된 후 강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지만 딸이 죽기 14일 전으로 타임워프가 되면서 시작된다. ‘사건 10일 전’이라고 시간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작품은 김수현과 기동찬(조승우)·한지훈(김태우) 등 등장인물 각자가 지난 공개되지 않은 과거사와 이들 사이에 실타래처럼 얽힌 악연을 풀어가면서 전개된다. 7회(24일)에선 기동찬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마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기동찬과 그의 형이자 10년 전 여성 살해범으로 수감 중인 기동호(정은표)·김수현의 남편 한지훈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이 예고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탄탄한 스토리가 드라마에 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매회 한샛별 살해범으로 다른 용의자가 등장하면서 “답답해서 못 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차봉섭(강성진)·장문수(오태경)가 범인에서 제외된 7회에선 김수현의 후배 주민아(김진희)가 새 용의자로 부상했다.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 이보영. /SBS 제공

이외에 김수현을 돕고 있는 기동찬부터 샛별의 아빠 한지훈, 샛별이 좋아하는 록그룹 스네이크의 테오(노민우)까지 등장인물 모두 의심 갈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주연 이보영이 맡은 김수현도 민폐 캐릭터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딸의 살해범을 찾아야 하는 모성 때문이라고 차치할 수 있으나 김수현은 무모할 정도의 행동파여서 과거 전설적인 형사였던 기동찬을 매번 난감하게 한다. 김수현이 일을 저지르면 기동찬이 해결하는 식의 전개가 반복되다 보면 웰메이드 작품이라는 호평이 무색해지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신의 선물’은 지난 24일 8.8%의 시청률(전국·닐슨코리아 기준)을 기록하며 시청률 10%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고전 중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별에서 온 그놈’

‘시청률의 제왕’

드라마 패러디에 빠진 코미디 방송

코미디 방송이 인기 드라마 패러디에 빠졌다. 대중에게 코너를 쉽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재 우려먹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그우먼 홍윤화는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속 ‘별에서 온 그놈’(이하 ‘별그놈’)에서 망가진 천송이 역을 맡았다. ‘별그놈’은 전지현과 김수현이 출연해 화제를 모은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 패러디물로 개그맨 황영진과 김건영은 각각 도민준(김수현)과 이재경(신성록)을 모사한다.

‘굿 닥터’는 ‘웃찾사’의 또 다른 패러디물이다. 지난해 종영한 KBS2 월화극 ‘굿 닥터’를 차용한 이 코너는 개그맨 안시우가 자폐 3급 레지던트인 박시온(주원)을 완벽하게 성대모사하고 있다.

‘웃찾사’가 드라마 캐릭터를 모사한다면 KBS2 ‘개그콘서트’(이하 ‘개콘’)는 주로 드라마의 이름을 활용한다.

개그우먼 이희경이 마스카라 범벅이 된 진상 만취녀로 열연 중인 ‘취해서 온 그대’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비롯됐고 ‘웃찾사’의 ‘별그놈’과는 내용만 다를 뿐 유사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청률의 제왕’은 지난해 4월부터 방송된 ‘개콘’의 장수 코너로 배우 김명민·정려원 주연의 SBS ‘드라마의 제왕’을 개그로 풀어낸다. 아이돌 출신 연기자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대사로 어색하게 표현하고 불륜·이복남매 등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웃음을 유발한다. /전효진기자

'백프로' 윤시윤·여진구 스승과 제자 호흡 '눈길'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백프로'가 주연배우 윤시윤(사진 왼쪽)과 여진구(오른쪽)의 미공개 스틸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이 영화는 유명 프로골퍼로 이름을 날리던 백프로(윤시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폐교 위기에 처한 섬마을 학교를 구하기 위해 이병주(여진구), 순박한 아이들과 함께 좌충우돌하는 일들을 그린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에서 윤시윤과 여진구는 스승과 제자의 남남커플로 분해 남녀 커플 못지않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해 눈길을 끈다. 3년 전에 제작된 영화라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이들의 앳된 모습도 눈에 띈다.

윤시윤에게 골프를 배우고 네잎 클로버로 마음을 전달하는 여진구의 모습, 어느새 한 팀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의 모습, 대회 참가를 앞두고 바다를 배경으로 골프 연습을 하는 윤시윤과 여진구의 해맑은 미소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탁진현기자

"140일 만든 복근 14일만에 사라져"

'표적' 류승룡 액션연기 도전

영화 '표적'에서 킬러 역할을 맡아 액션에 처음 도전한 류승룡(사진)이 배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털어놓았다.

25일 CGV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류승룡은 "중년의 나이에 앞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불안이 있었다"고 뒤늦게 액션 연기에 도전한 이유를 전하며 "이번처럼 강한 액션은 처음이다. '표적'은 개인적으로 도전의 의미가 담긴 작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4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이번에 영화 촬영을 위해 운동하면서 내 복근을 처음 봤다. 운동해본 사람들은 8주, 4주 만에도 복근을 완성한다는데 나는 총 20주, 140일이 걸렸다"고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날렵한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에 맞는 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꽃미남의 몸이 아닌 중년의 둔탁하고 투박한 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내 "140일 동안 만든 복근이 14일 만에 사라졌다. 인체의 신비를 경험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CGV압구정에서 진행된 영화 '표적'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류승룡이 포토타임때 이진욱을 잡고 도망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뉴시스

'표적'은 의문의 살인사건에 휘말린 남자 여훈(류승룡)과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와 위험한 동행을 하게 된 의사 태준(이진욱), 그리고 이들을 쫓는 두 형사가 펼치는 36시간 동안의 숨 막히는 추격을 그린 작품으로 다음달 30일 개봉한다.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카사노바부터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허균, '7번방의 선물'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까지 다양한 연기를 펼쳤던 류승룡이 이번에는 리얼한 액션을 선보이며 거칠고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중국 간 '설국열차' 개봉 첫주 82억원

'만추' 흥행속도 추월

17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사진)가 첫 주 4710만 위안(약 82억원)을 벌어들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중국 영화 집계 전산망 이앤베이스에 따르면 '설국열차'는 23일까지 이 같은 매출을 기록해 같은 시기에 개봉한 할리우드 3D 블록버스터 '니드 포 스피드'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설국열차'의 개봉 첫 주 성적은 중국에서 수입 개봉한 한국영화 중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현빈·탕웨이 주연의 '만추'를 뛰어넘는 흥행 속도여서 최종 성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추'는 중국에서 2012년 3월에 개봉해 첫 주 4410만 위안(약 77억원), 최종 6686만 위안(약 117억원)을 기록했다.

'설국열차' 중국 배급을 담당하는 CJ E&M 관계자는 "'설국열차'가 중국 자국 영화가 아님에도 스크린 점유율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흥행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봉 이후 중국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영화 관련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중국 영화 전문 사이트 엠타임에서는 현재 상영작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 중"이라며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만추'의 최종 박스오피스 기록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설국열차'는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대만·홍콩·일본·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10개 국가에서 개봉됐다. 중국에서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개봉을 앞둔 독일·북미 등지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지 기대가 모인다 /탁진현기자

CGV 4DX 미국 진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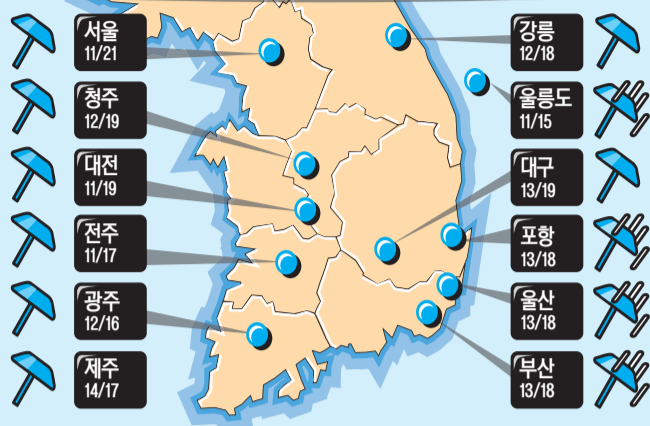
4D 영화를 상용화한 CJ 4D 플렉스가 24일 세계 최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 미국 최초 4DX 상영관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영화산업 박람회인 시네마콘에서 성사됐다. CJ 4D 플렉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위치한 '리갈시네마 LA 라이브 스타디움 14'에 4DX 영화관을 설치하고 올여름 미국 최초 4DX 블록버스터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전 세계 23개국에 설치돼 관객에게 새로운 영화 체험을 선사하고 있는 토종 4DX가 LA까지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4DX 상영관이 들어가는 '리갈시네마 LA 라이브 스타디움 14'는 2009년 문을 연 최첨단 극장으로 현재 LA 관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극장으로 통하며 4DX 상영관 설치로 몰입도가 높은 4D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CJ 4D 플렉스는 24~27일 열리는 시네마콘에 전시 부스, 4DX미니 체험관을 운영하며 4DX 차세대 기술을 공개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이희준, 이병헌과 한식구

배우 이희준(사진)이 이병헌과 한 소속사 식구가 됐다.

BH엔터테인먼트는 25일 "이희준이 가진 모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속계약 체결 사실을 전했다.

2004년에 데뷔한 이희준은 영화 '밀양' '부당거래' '황해' '범죄와의 전쟁' '화차' '감기' '결혼전야'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KBS2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현재 영화 '해무'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BH엔터테인먼트에는 이병헌을 비롯해 배수빈·심은경·안소희·진구·하연수·한가인·한지민·한효주 등이 소속돼 있다. /탁진현기자

오인혜 '카오스'로 영화 복귀

배우 오인혜(사진)가 영화 '카오스'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구는 오인혜가 손영호 감독이 연출한 미스터리 멜로 영화 '카오스'에서 여주인공 다희 역으로 캐스팅됐다고 25일 밝혔다.

영화 '카오스'는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 출품작으로 '심리의 흐름' 기법으로 전개되는 아트 컬트무비다. 오인혜는 어린 시절 엄마의 불륜과 살인 현장을 목격한 여주인공 다희 역을 연기한다. 어린 시절 아픔을 딛고 성장한 벨리댄서 다희는 정서적·정신적 분열 증세를 겪는다.

오인혜는 '카오스'를 통해 다중인격이라는 이색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1			3		2	
		2						3
8	3				4			
			6		9	4		
1	7		2		5		9	6
		6	1		7			
			4				8	9
7						2		
	2		8			3		4

6			5					4
		4		1		3		5
3	8			7				2
		7		8	1			
	3						2	
			4	2		6		
1				3			5	7
5		3		4		8		
9					2			1

스도쿠 정답

9	4	1	5	6	3	7	2	8
5	6	2	7	1	8	9	4	3
8	3	7	9	2	4	1	6	5
2	5	8	6	3	9	4	1	7
1	7	3	2	4	5	8	9	6
4	9	6	1	8	7	5	3	2
3	1	5	4	7	2	6	8	9
7	8	4	3	9	6	2	5	1
6	2	9	8	5	1	3	7	4

6	1	2	5	9	3	7	8	4
7	9	4	2	1	8	3	6	5
3	8	5	6	7	4	9	1	2
2	6	7	3	8	1	5	4	9
4	3	9	7	6	5	1	2	8
8	5	1	4	2	9	6	7	3
1	4	8	9	3	6	2	5	7
5	2	3	1	4	7	8	9	6
9	7	6	8	5	2	4	3	1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우이령길의 상흔

얼마 전 서울 우이령길을 걸었다. 산갈나무와 단풍나무, 밤나무, 잣나무 등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는 등 북한산 내 어느 지역보다 자연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우이령길은 걷고 싶다고 아무 때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지난 1968년 벌어진 뜻밖의 사건, 이른바 '1·21사태' 탓이다.

당시 휴전선을 넘은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이동하는 식으로 남하를 계속했다. 그렇게 해 청와대 코앞까지 다다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사흘, 놀란 것은 박정희 정권만이 아니었다. 이틀 뒤인 1월 23일에는 원산 앞바다에서 감청 중이던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에 나포되면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향토예비군 창설'과 '주민등록제 강화'로 연결됐다. 동시에 정부는 백악산과 인왕산에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한 데 이어 우이령길까지 폐쇄해버렸다. 백악산과 인왕산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경호를 위해, 우이령길은 만약 북에서 백두대간과 한북정맥을 타고 내려올 경우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태로 41년이 흐른 지난 2009년, 군사분계선 관리가 안정화되면서 백악산이 개방됐고 우이령길 출입도 예약만 하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고 시험 운행 이벤트를 벌였던 남북 간 동해선 철도는 여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남쪽의 안보 자신감은 높아졌지만 남북 사이에 도는 냉기는 여전한 듯하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공무원시험 준비 잘될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말길

미남2 남자 70년 음력 6월 15일 오후 2시

Q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잘되질 않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니 불안하기만 하고 글씨 자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은지, 혹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분야가 저와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A 늦은 나이에 관귀학관(官貴學館)으로 나이가 들수록 운이 상승하는 길운이니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2014년 운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탄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확실한 것 같으나 어느 한 순간에 내가 가는 길이 생소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되며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매달리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나이가 들어 젊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될 터이니 독서와 자기 실력을 배양하는 데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3월 이후 천라지망(天羅地網)으로 머리가 아프고 비위가 약하게 되며 이어서 시력과 심장도 약해질 터이니 여러 갈림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운동하며 분발하십시오.

아르헨티나 이민 생각중인데 인테리어기술 배우고 가세요

미남2 남자 67년 음력 3월 28일 아침 8시

Q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점점 지쳐만 가고 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친척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계시는데 와서 같이 일해보자고 권유하시는데 가도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손재주가 있으니 인테리어 기술을 배워 가십시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기상을 품고 용맹심을 일으키십시오. 순박하고 겸손하지만 '해 질 무렵의 양'과 같은 형상으로 적적한 기운이 감돌고 숙살지기(肅殺之氣)가 있어 마음이 틀어지면 끝까지 풀리지 않는 고지식함으로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아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운세가 풀리거나 확장되지는 않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길만이 최선이라 봅니다. 국내에서 운이 잘 풀리지 않으며 장기간 계속될 때는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운을 바꿀 수 있는 방책이 됩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남연살(男戀殺)로 이성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해이니 들뜨지 말고 참고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6일 (음 2월 2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생각하던 것 이상 얻는다. **60년생** 뜻을 이루려면 작은 것에 연연 마라. **72년생** 꼼수 부리면 되레 당한다. **84년생** 일이 잘 풀려도 중간에 재검토할 것.

49년생 결자해지의 자세 필요~. **61년생** 매매와 관련된 일은 성사가 된다. **73년생** 동남쪽에서 좋은 소식 오니 기대하라. **85년생** 생각이 많으면 기회 놓친다.

50년생 협상은 성사되기 좋은 날이다. **62년생**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라. **74년생** 분주한 가운데 지갑은 두둑해진다. **86년생**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 기분 좋은 하루~.

51년생 등 따시고 배부른 하루~. **63년생** 뜻밖에 웃을 일이 생긴다. **75년생** 불운 끝이니 이젠 뜻을 마음껏 펼쳐라. **87년생** 결정할 일은 서두르는 게 이롭다.

52년생 어려움 감수하면 편안하다. **64년생** 아랫사람 잘 다독여줘라. **76년생**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 힘이 솟는다. **88년생** 귀인이 도우니 변화가 무궁무진~.

53년생 집안 분위기 바꾸는 데 앞장서라. **65년생**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77년생** 실수는 냉정하게 받아들여라. **89년생** 가슴을 흔드는 이성과 마주한다.

42년생 불청객 때문에 심란하다. **54년생** 망석은 깔렸으니 마음껏 즐겨라. **66년생**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78년생** 화해할 땐 손 먼저 내밀어라.

43년생 허전할 땐 한잔이 약~. **55년생** 생각도 못 한 공돈이 생긴다. **67년생** 순풍이 불 때 배를 띄워라. **79년생** 공적인 자리에서 모호한 답변은 오해만 산다.

44년생 자손이 근심을 안긴다. **56년생** 찬바람 맞던 집에 봄기운 성큼~. **68년생** 방심하면 받을 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 **80년생** 양보할 일이 있으면 쿨하게 할 것.

45년생 배우자와 상생이 필요하다. **57년생** 파벌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 **69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81년생** 보이지 않는 손의 음모 경계하라.

46년생 호사다마니 매사 조심~. **58년생** 용기 잃으면 시렁 위의 고양이 신세 된다. **70년생** 염치가 없는 동료 때문에 부글부글~. **82년생** 상사에게 원하던 답 듣는다.

47년생 측근 너무 믿으면 손해 본다. **59년생** 자녀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어 기쁜 하루~. **71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83년생** 스스로를 세상과 유배시키지 마라.

주희정 3점포 5발 폭죽

프로농구 4강 PO 2차전서 SK, 모비스 꺾고 1승1패

서울 SK가 울산 모비스를 꺾고 균형을 맞췄다.

SK는 25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강 2차전에서 모비스를 74-69로 눌렀다. SK는 원정 2연전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이날 베테랑 백업가드 주희정은 3점포 5발을 터뜨리는 등 16점을 맹폭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SK에서는 코트니 심스가 17점, 주희정이 16점(3점슛 5개), 김선형이 14점, 최부경이 11점을 마크했다. 모비스에서는 문태영이 22점, 양동근이 17점,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11점을 기록했다.

SK는 총력전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했다. SK는 전반전에서 34-28로 리드했다.

모비스는 3쿼터에 힘을 냈다. 3쿼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양동근, 박구영의 연속 3점포로 39-39를 만들었다.

이후 경기는 막판까지 접전으로 이어졌다. 주희정은 경기 종료 1분 58초를 남기고 69-67에서 기습적인 3점슛을 성공시켰다.

SK는 경기 종료 1분10초를 남기고 73-67로 6점까지 리드하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주희정은 4쿼터에서만 3점슛 3개를 성공시키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반면 모비스는 버저가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3점포로 반전을 노렸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프로농구 PO 전적 25일

모비스	13	15	26	15	69
SK	19	15	15	25	74

'리바운드 한수위' 우리銀 먼저 1승

여자농구 챔프결정 1차전 신한은행에 19점차 대승

여자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이 챔피언에 한발짝 다가섰다.

25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춘천 우리은행은 안산 신한은행을 상대로 80-61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뒀다.

우리은행은 3쿼터를 마쳤을 때 이미 56-41로 크게 앞서며 신한은행을 따돌렸다. 이날 우리은행은 높이와 조직력에서 한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며 우승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초반부터 골밑을 장악했다. 신한은행(23개)보다 21개 많은 44개의 리바운드를 잡았다.

2차전은 2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지민기자 langkim@

여자농구 챔프전 전적 25일

우리은행	17	20	19	24	80
신한은행	18	14	9	20	61

25일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 1차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우리은행 임영희가 수비를 피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5월 은퇴무대 '아디오스, 그라시아스'로

'피겨 여왕' 김연아(24·사진)가 은퇴 무대의 주제를 '아디오스, 그라시아스'로 정했다.

5월 4~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를 개최하는 김연아는 쇼의 주제를 '안녕, 고마워'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결정했다.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받은 팬들의 사랑에 고마움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주제 선정에는 김연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가 밝혔다. 이번 아이스쇼에서는 주제에 맞춰 김연아가 감사의 무대를 꾸미고, 팬들도 반대로 김연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해 서로 교감한다.

김연아가 선수로서 걸어온 길을 조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알리고, 새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별 영상과 시스템을 준비한 극적인 연출로 팬들과 교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임창용 삼성 복귀설… 야구판 '요동'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메이저리그 소방수에 도전했던 우완 임창용(사진)이 지난 25일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됐다. 컵스는 시범경기에서 임창용의 불펜 기용 가능성을 점검했으나 불가 판정을 내렸고 마이너리그행을 통보했다.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방출은 친정 삼성 라이온즈 복귀를 의미한다.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임창용의 복귀설은 지난달부터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임창용은 마이너 계약을 맺은 스프링캠프 초청선수였다. 시범경기를 마치고 25인 로스터 진입에 실패한다면 나이를 감안하면 메이저리그 꿈을 접어야 하는 처지였다.

삼성은 임창용이 너무나 절실했다. 소방수 오승환의 한신 타이거스 이적으로 뒷문이 부실해졌다. 안지만이 소방수로 이동했으나 이젠 필승 불펜요원의 부재가 빚어졌다. 철옹성에 금이 갔으니 상대 팀들이 삼성을 만만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이었다.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 등이 우승후보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류중일 감독은 지난달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불펜 보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확실한 카드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일찌감치 물밑에서 임창용의 복귀를 면밀히 추진했고 사실상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컵스에 이적료를 지불했고 방출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했다.

임창용이 복귀한다면 삼성은 정규리그·한국시리즈 4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시즌 전망을 다시 해야 한다. 물론 임창용이 예전의 뱀직구를 던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38세의 노장 소방수가 개막을 앞두고 프로야구판을 뒤흔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손흥민·지동원 27일 시즌 첫 맞대결

태극전사 골잡이 손흥민(22·바이엘 레버쿠젠)과 지동원(23·FC 아우크스부르크)이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지동원의 아우크스부르크는 27일 오전 4시 홈구장인 SGL아레나에서 손흥민이 소속된 레버쿠젠과 2013~2014 분데스리가 2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번 손흥민과 지동원의 대결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정규 리그 첫 승부이자, 지난 시즌 26라운드 경기에서 지동원에게 판정패를 당했던 손흥민이 심기일전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동원과 같은 팀인 홍정호도 10라운드에서 손흥민의 2호 골을 저지한 바 있어, 손흥민에게는 이번 코리안 더비가 자존심 회복을 위한 기회다.

손흥민

지동원

코리안 더비도 중요하지만 손흥민에게 이번 경기는 특별하다. 지난달 8일 열린 20라운드 묀헨글라트바흐전 8호 골 이후 포문을 열지 못했고 소속팀 또한 1무8패로 추락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은 손흥민의 발끝에 달렸다.

현재 레버쿠젠이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상대 전적에서 5전 전승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2무1패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동원은 꾸준한 출전으로 경기감각을 키우며 분데스리가에 잘 적응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홍명보, 아시안컵 조추첨 위해 호주 출국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추첨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